

광주·전남 농수산물 수출·관광 '비상'

日 대지진 여파 파프리카·화훼 등 내수 위축 관광객 예약 취소 잇따라 광양훼리 출항 포기

일본 대지진 여파로 광주·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업체와 관광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 및 대일 수출 비중이 큰 농산물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수출 차질과 수입 가격 급등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 농수산물 수출 어쩌나=전남도는 당장, 일본이 파프리카와 화훼,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지진사태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데 따라 수출 농가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

규모는 1억1447만4000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의 57.3%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 수출 비중이 크다.

파프리카의 경우 지난 1월 수출 실적은 59만8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23.6% 증가한 것을 비롯해 닭고기(66.2%), 조미김(95.3%), 유아차(79.5%) 등 주요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 내수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도내 수출 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광주의 한 화훼업체 대표는 "올해 도쿄·오사카·나고야에 이어 삿포로 등 북부 지역까지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고 지진사태로 미뤄

아 할 형편"이라며 "그나마 일본 내 수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높아 물량이 줄어들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이들 농가들의 수출 지역이 도쿄·오사카·후쿠오카·시모노세키 등 지진 피해지역이 아닌데다,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수출 물량이 늘어날 계기가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관광객, 구제역과 시로 '엄치고' 대지진에 '덜쳐' = 일본 지진으로 일본과 한국 관광업계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다음달 13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예정된 현지 관광 설명회를 취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지난 7일부터 3일간 일본 후쿠오카와 히로시마에서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일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일본 지진 여파로 일본 관광객 유치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니 중국 관광객을 끌어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관광객 유치 전략의 변화를 지시했다.

일본 강진 여파로 예약 취소도 잇따라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광양훼리도 최근 출항을 취소했다.

한편, 전남도는 일본 내 전남 출신 3만7510명 가운데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 현에 모두 933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오사카 통상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난 지역의 경우 ▲아오모리 86명 ▲이와테 54명 ▲미야기 185명 ▲아키타 59명 ▲야마가타 63명 ▲후쿠시마 130명 ▲이바라키 326명 등에 전남 출신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위로했다. /연합뉴스

해법 안보이는 민주 재보선 공천

순천 무공천 반대 무더기 탈당 예고·강원 경선 반발 당 중진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최악 '0대4' 우려

민주당의 4·27 재보선 공천 해법이 갈수록 꼬이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강원지사 경선 방식을 놓고 일부 후보들의 반발로 진동이 계속되고 있고 텃밭인 순천에선 지도부의 '무(無)공천' 방침에 반발, 무더기 탈당 사태가 예고되는 등 당 내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는 당 중진들이 이 같은 당의 상황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지켜만 보는 등 순화규 대표에게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여권의 '손 대 표 흔들기'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

서는 민주당의 재보선이 아니라 손 대표 혼자만의 재보선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당 일각에선 자칫 '4대 0 전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선관리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강원 경선과 관련, 20일 원주권, 27일 춘천권, 내달 2일 강릉권에서 순회 경선을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순회 합동연설회를 연 뒤 내달 3~4일 '당원전수조사(50%) + 일반국민 여론조사(50%)' 방식의 경선을 실시, 5일 후보를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조일 현 전 의원이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찾아 "한나라당보다 당세가 뒤지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야만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순천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조순웅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희승 변호사 등 기존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경남 김해에선 아권 연대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지도 등을 엮고 '친노'의 상징성을 내세워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필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형 원자력발전 안전·효율성 최고”

李대통령 UAE 기공식 참석 12억 배럴 유전 개발 MOU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 시간)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브라카에서 열린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원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2월 UAE를 방문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4기 건설 수주가 확정된 곳이다.

이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한국 기업이 최고수준의 원전을 UAE에 건설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원전 건설 협력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형 원전이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형 원전이 중동지역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건설 사무소 입구에서 타임캡슐 내장을 기념문안에 서명하고 기념물을 제

막한 뒤 공사현황을 브리핑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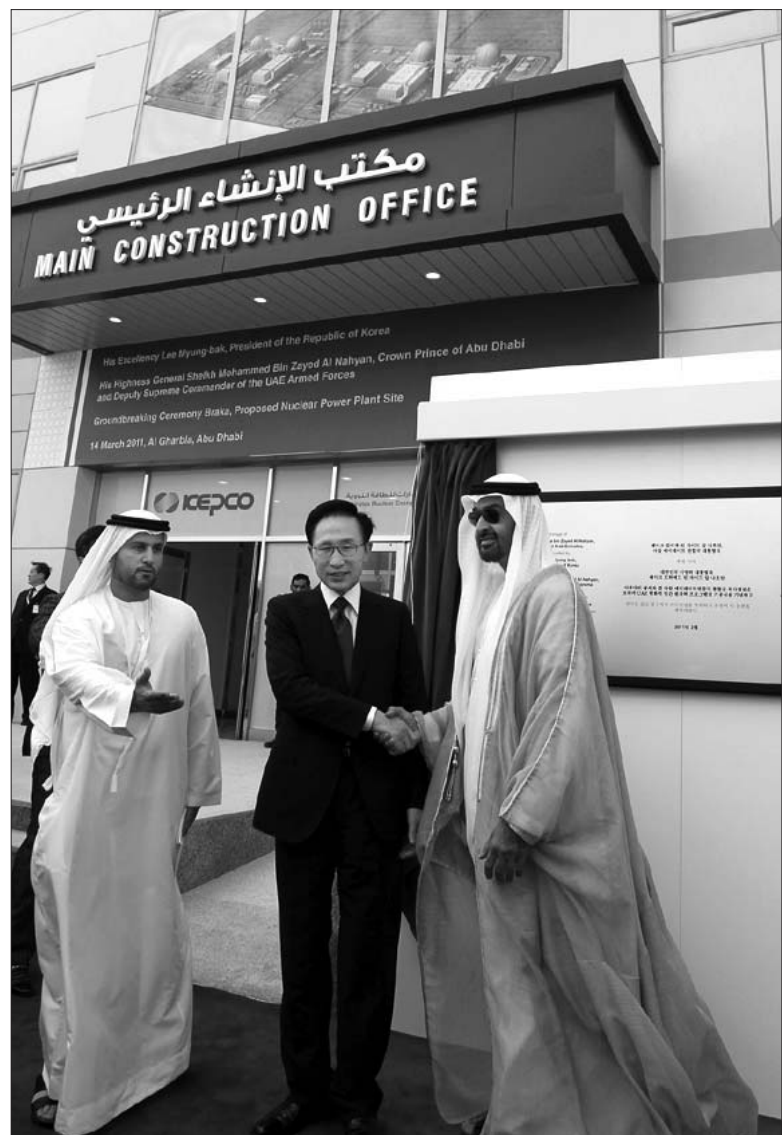
UAE원전 공사발주처인 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는 지난해 12월 브라카 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며 내년 6월 승인되면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은 ENEC로부터 지난해 공사대금으로 약 6천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3일 오후 알-무슈리프공에서 정상 회담을 가진 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석유공사 간의 '석유가스분야 협력개발 MOU(양해각서)' 및 '3개 유전 (HOT : Heads Of Terms)'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12억 배럴, 현시세로 130조원 규모의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주개발률은 10.8%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에너지위기 시 전략적 완충이 가능한 20% 수준에 가까워졌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아부다비 서쪽 해안의 브라카에서 열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 모하메드(오른쪽) 왕세자와 기념동판을 제작하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연대’엔 동의, 방법은 제각각

순천 보선 출마 예상자들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들 대부분이 야권연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방향은 제각각으로 달랐다.

순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운영하는 상설기구인 순천행정모니터연대는 최근 순천 4·27 보선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야권연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해 받은 답변서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모니터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인사는 순천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조순웅(59·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세찬(49·전 민주당 순화규 대표 특보), 박상철(51·경기대 교수), 구희승(48·변호사), 허신행(68·전 농림부 장관), 허상만(67·전 농림부 장관), 조재환(62·전 민주당 의원), 김선동(43·민주노동당 순천 보선 후보) 등 총 8명이다.

이들 중 조순웅, 구희승, 허상만, 김선동, 허신행 등 5명이 답변에 응했다.

구희승 후보는 민주당 소속 후보를 포함시켜 단일후보를 선출할 것을, 조순웅 후보는 각 4당에서 후보를 내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단일후

보가 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허상만 후보는 순천지역 야권 4당과 지역사회 대표들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단일후보를 뽑을 것을 제안했다.

민노당의 김선동 후보는 민주당 무공천은 정권교체를 위한 전국적 야권연대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사실상 민주당 후보 배제를 요구했다. 이밖에 허신행 후보는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답변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희승, 조순웅, 박상철 등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당 소속 후보 무공천을 통한 야권연대 방지에 반발해 탈당 불사를 외치며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